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 협력 본격화... 환경정책 공조 및 이행 모색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9차 환경개발위원회 참여
- 우리나라 탈탄소 녹색 대전환 의지 및 한중 대기질 개선 협력 사례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9차 환경개발위원회**에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역내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UN ESCAP)

** The ninth session of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CED-9)

제9차 환경개발위원회는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로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지구 삼중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및 이행’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분절적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해법을 모색한다.

*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및 사막화, ▲오염

우리 대표단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 기후·환경오염·자연재해·수자원·질병·생물다양성 등의 문제를 생태계의 보호·복원·관리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조치(IUCN, 2016)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과 위성 데이터에 근거한 대기질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과학에 기반한 협력이 지구 삼중위기의 통합적 대응과 국가 간 협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임을 역설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환경개발위원회 기간 중 중국환경과학연구원(CRAES),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청정 대기 증진: 지역협력을 위한 동북아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부대행사를 주최한다.

이번 부대행사는 우리나라의 대기질 개선 성공 경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공유하고,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뤄낸 대기관리 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대기질 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속도감 있는 녹색대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9차 환경개발위원회 개최 계획.
 2. 부대행사 상세 일정.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권영희 (044-201-6560)
		담당자	사무관	신영훈 (044-201-6573)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책임자	과 장	강대일 (032-560-7253)
		담당자	연구사	이승하 (032-560-7285)



□ **회의개요**

- (회의명) 제9차 환경개발위원회(CED-9*)
 - * The ninth session of the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일자/장소) '26.7.1.(수) ~ 7.3.(금) / 태국 방콕 유엔 컨퍼런스센터
- (주제) 지구 삼중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간 시너지 강화 및 통합적 이행 촉진
- (주요의제) ①아·태지역 환경개발 장관선언문 및 ②지속가능발전 위한 시너지 촉진에 관한 지역 행동계획('26~'30) 채택
- (참석자) 각국 정부 장관급, 국제기구, 시민단체, 기업 등 300여 명

□ **상세일정**

시간	내용	비고
7.1.(수)		
09:00~12:00	각료회의(장관급 원탁회의)	
12:00~12:45	점심	
12:45~13:45	부대행사	
14:00~17:00	각료회의(이해관계자 원탁회의)	
7.2.(목)		
10:00~12:30	고위실무자회의	
12:00~13:00	점심	
13:00~16:00	부대행사 및 연계행사	
7.3.(금)		
10:00~12:30	부대행사 및 연계행사	
12:30~14:00	점심	
14:00~16:00	장관선언문 및 지역 행동계획 채택	
16:00~	폐회	

□ 부대행사 일정

- (주제) 아시아·태평양 청정 대기 증진 : 지역협력을 위한 동북아의 교훈
- (일자/장소) '26.7.2.(목) / 태국 방콕 유엔 컨퍼런스센터

시간	내용
13:30-13:40	개회
13:40-14:40	<p>모두를 위한 깨끗한 공기: 국가 경험을 활용한 시너지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사례(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개선 관련 국가 및 소지역 경험 소개 - Gao Jian 박사(CRAES, 중국측) - Chang Lim-Seok 박사(NIER, 한국측) - Gantuya Ganbat 박사(NEACAP 과학정책위원) • 국가간 시너지 구축(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한국 간 대기질 관리 협력 사례 - WU Jieyun 박사(한중협력센터 중국측 부센터장) - Chang Lim-Seok 박사(한중협력센터 한국측 부센터장) - Surat Bualert 교수(태국 카셋사 대학)
14:40-15:40	<p>모두를 위한 깨끗한 공기: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차원의행동(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renzo Santucci 부장(UNESCAP) - Perma Gyamtsho 박사(국제통합산림개발센터) • 시너지를 위한 파트너십(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지역 지역 경험 및 협력 기회 논의 - Yujeong Kim 과장(UNEP) - Ekachai Lojanaphiwat 소장(독일국제협력공사) - FU Lu 소장(청정대기기금 지역사무소)
15:40-15:55	참석자 자유 토론
15:55-16:00	종합정리 및 폐회사